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5호 【무계 제25919호】 주제 107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49호

주제107(2018)년 2월 13일 평양

###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웅조선의 강성한 기상을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시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철석의 맹세를 가슴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이 땅위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불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본분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오늘 인민군대앞에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위력을 바탕으로 다지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굳건히 담보해 나아가 할 중차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나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쳐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기를 제일군기로 높이 휘날리며 반제반미대결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것을 굳게 믿으면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려줄것을 명령한다.

- △ 육군총장 안명건
- △ 해군소장 김영선
- △ 전략군소장 김명복 천혁주 손종득 리정복
- △ 육군소장 김동길 김철웅 김명호 안성도 리성국 리영기 승용근 김정남 박종길 김정한 리명일 방두옥 박익성 김창국 정영남 리경호 로경철 맹경찬 심성빈 김규철 김영환 렬을삼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기대 통신은 김정은 작하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무제도전차공장과 현지지도하시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작하께서는 공정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의 실익을 보장할수 있게 통합생산체제를 잘 구축해놓았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세형의 무제도전차들을 보시었다.

김정은 작하께서는 평양무제도전차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무제도전차 생산기지로 전면시작하는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공장이 진행해야 할 2단계 개건현대화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인디아신문 《아시아 카바르 데일리》, 네덜란드 《데발 두데이》, 로씨야의 인터넷신문 펜파, 루, 에리트레아 《알 야움 알 싸비아》,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방송, 미국의 UPI 통신과 블스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한 국제친선발기, 에스파냐 바스크주제사상연구소인 인터넷홈페이지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김정은 령도자께서 늦은 밤 평양무제도전차공장에서 만든 세형의 무제도전차를 타시고 시내를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무제도전차를 타보니 편안하고 믿음에 간다고, 완충장치도 좋고 진동과 소음도 없으며 속도도 괜찮다고 평가하시었다고 전하였다.

인디아-아시아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로씨야의 미아 노보스씨통신, 인페르프레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카야 가세타》, 《프조프스카야 브라우다》, 텔레비TV방송, 텔레비TV방송, 로씨야 24TV방송, 인터넷잡지

### 위대한 강국의 시대에 더욱 만발할 불멸의 꽃

광명성절경축 제22차 김정일화축전 개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축전 30돌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자주시대의 대불꽃 불멸의 열정을 보여주었고 사회주의위업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만민기쁨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신뢰와 애정을 대성인으로서 만민에게 분출되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축전 30돌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자주시대의 대불꽃 불멸의 열정을 보여주었고 사회주의위업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만민기쁨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신뢰와 애정을 대성인으로서 만민에게 분출되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개막식은 시작되었다. 개막사를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 김상도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명한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강성한 기상이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조국과 민족, 시대와 혁명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업성과 태양의 존함은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마다에 정의와 승리의 상징으로 깊이 간직되어있다고 하면서 그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모두의 크나큰 자랑이고 더없는 영광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는 김정일화축전과 함께 전국각지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불멸의 꽃 전시회가 열리며 지구상 그 어디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집결한 정중히 보셔져있다.

《위대한 강국으로 영광편지는 주체조선에 만발한 김정일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축전에는 무력, 학생들과 정성껏 피운 수만산의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었다.

또한 제일본조선인용면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 해외동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문화단체들, 인사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린 위인칭송의 꽃들이 전시되었다.

개막식이 13일 김정일화김정일화 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내각 부총리 전방호동지, 축전조직위원회의 태양의 꽃을 전시킨 단위 인군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제22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 온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광명성절경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 경모의 정 표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광명성절경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이 평양에서 경모의 정 표시하였다.

축하단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번영의 행복을 위한 만민토대를 마련해주셨으며 제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엔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였다.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13일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역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시대와 역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철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